

쏟아지는 코로나19 확진자... 광주·전남 유통업계 초긴장

광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27일 떨어지면서 유통가와 외식업계는 또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대형 유통매장들은 주말 동안 각종 생필품을 할인판매하고 마진을 줄여가면서 협력업체 협업전을 준비했지만 모두 허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거세진 지난 주말(22-23일) 매출이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광주신세계는 개점 25주년을 맞아 이달 지역 농수산물 할인전과 다양한 사은행사를 마련하면서 이달 초반 매출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 주말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코로나19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광주신세계 본사 소속 직원들은 지난 월요일(24일)부터 나흘 동안 부서의 절반 인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이 점포는 1층 입구 2곳과 9층 아카데미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매장 1층 후문 출입구와 터미널 방향 입구에 터널형 소독 분사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 1층 푸드 플라자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8월1~26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줄었고, 광주시

광주신세계, 열화상 카메라 설치·터널형 소독 분사기 운영
롯데백화점 광주점, 계산대 등에 칸막이 설치·방역에 만전
전통시장·상점가도 정기적인 방역 소독에 마스크 나눠주기

역 롯데아울렛 2곳의 평균 매출은 16% 떨어지며 두 자릿수 감소를 나타냈다.

본사 소속 직원들은 지난 달부터 부서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을 응대하는 계산대와 사은행사, 문화센터, 직원식당을 비말 차단용 마스크 70만장을 확보해 판매하고 있는 이마트는 주말 동안 매장 공급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는 역과 출입문 손잡이, 승강기 등에 대해서

는 6차례 부분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에 4개 점포를 둔 이마트 역시 본사 직원 재택근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조처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비말 차단용 마스크 70만장을 확보해 판매하고 있는 이마트는 주말 동안 매장 공급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외식을 자제하고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생선 집밥, 흡술 경향으로 이탈 들어 축산(16.8%), 채소(23.9%), 밀키트(19.9%), 생수(11.6%) 등 먹거리와 생필품 위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화상회의와 원격 강의, 낮은 더위 영향으로 대형 가전 매출은 30% 가까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광주 36개 전통시장과 12개 상점가, 전남 110여 개 전통시장·상점가도 또 터널 약제에 올상이다.

고객이 똑 끊긴 상황과 감염병 확산을 감안해 휴업 등 고육책을 꺼내기도 했다. 순천 옷장과 아랫장, 상설시장인 역전시

장 상인회는 지난 25일부터 6일간 자율적인 임시 휴업을 결정했고, 여수 대표 관광지인 '낭만포차'는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열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에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의류·신발 등 공산품을 파는 점포의 경우 매출이 70% 넘게 떨어지는 등 코로나19 타격은 한 해 내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연합회가 나눠준 방역용품으로 정기적인 소독을 벌이고 있고 회원 점포 5773곳에는 마스크 25개씩 나눠줄 수 있도록 시에 협조요청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장학증서 수여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앞줄 오른쪽 세번째)은 지난 26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지역 104명에게 총 1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광주은행 장학회는 39년 동안 지역인재 4000여 명에게 총 33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광주은행 제공>

나주 혁신도시 한전KPS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전KPS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다.

한전KPS는 지난 26일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20년 6차 이사회'에 장종인 노조 위원장이 근로자 대표 참관인으로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정부 국정과 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 법 개정 전까지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영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한전KPS 측은 설명했다.

한전KPS 이사회의 참관인은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1인이 대상이다. 한전KPS 관계자는 "한전KPS는 공기업 가운데 현장직업 비중이 가장 많기에 이번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가 노사가 함께 하는 새로운 경영참여형 조직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44.45 (-24.87)	↑ 금리(국고채 3년)	0.852 (+0.017)
↓ 코스닥	836.40 (-4.95)	↓ 환율(USD)	1185.00 (-1.80)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고발 금호아시아나, "무리하다" 반발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무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그룹 전략경영실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특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2월 아시아나항공은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사업권을 주고, 해당 업체 소속 해외그룹은 2017년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신주인수권부사채) 1600억원 상당을 무이자로 인수하는 '일괄거래'를 하게 됐다.

공정위는 "정상금리(3.77~3.82%)가 아닌 무이자 BW 인수로 금호고속은 약 162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말했다.

또 일괄 거래 협상 지연에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따르자,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단기 대여했다.

이런 지원을 통해 특수관계인 자본이 높은 금호고속은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

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커졌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대차 거래와 기내식·BW 거래 등이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각 자금대차 거래는 적정금리 수준으로 이뤄졌고, 짧은 기간 일시적 자금차입 후 상환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내식 및 BW 거래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기내식업체 LSGK가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전부소송판결을 선고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노딜' 위기 아시아나항공 인수 극적 반전 이루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인수 부담 낮춰 제안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결정만 남아

'노딜' 위기로 흘러가던 아시아나항공 인수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마지막 담판 자리에서 인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제 HDC현대산업개발의 결정만 남게 됐다.

회장은 지난 26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만나 인수 주체인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회장이 정 회장에게 산은 등 채권단과의 공동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측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밝

히지 않고 있지만, 관련 업계와 금융권에서는 기존 산은이 지원했던 영구채 8000억원에 추가로 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 산은과 현산이 각각 1조5000억원씩 출자해 조성한 3조원을 아시아나항공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현산 측과 인수 조건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했고 현산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며 "이후 일정은 답변 내용에 따라 금

호산업 등 매각 주체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산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최종 관건으로 남았다. 만약 현산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로 넘어가고,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시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9. 8(화)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별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